

영암군, 관내 대학교 재학생

대상 전입장려금 지원한다

학기별 25만 원씩 최대 4년 간 지원

영암군이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 사업'의 시행을 알리며 6만 인구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인구가 증가 시책을 내놓았다.

2012년 59,997명을 기록하며 6만 인구 붕괴가 시작된 영암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대비해 조례 개정 및 추경 예산 확보 등 차근차근 행정절차를 밟아, 관내 대학이 있는 군의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인구 증가의 직접적인 유인책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영암군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 사업'은 관내 대학교 재학생 중 대학교 기숙사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전입

신고를 기준 타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영암군으로 전입한 자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사업 지원 대상자로서의 적격 여부가 판단되면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즉시 25만 원 상당의 영암사랑 상품권을 현장에서 지급하며, 이후 재학 기간 동안 주소지 변동이 없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25만원의 상품권을 최대 4년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영암군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 사업'이 단순한 인구 수치의 증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관내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뜻이 있음"

을 밝히며, "대학 개강시기에 맞춰 본격적인 사업 신청·접수가 시작되니, 관내 대학교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사업 지침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주민세 부과, 건강보험료 별도 부과 등의 기타 경제적 부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완료함으로써 파생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였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인구 소멸은 곧 지역의 소멸과도 같음을 언급하며 "정주여건개선, 일자리·청년 분야 활성화, 복지·문화 혜택 증대 등 다각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라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강진 관광 택시'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

나홀로·가족단위 추억여행객 유치 활성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강진군이 '가심비 드라이브 여행'을 위한 '강진 관광 택시' 도입을 위해 지난 23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심비란 가격이나 성능보다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중시하는 소비 형태를 말한다. 가격 대비 성능을 뜻하는 '가심비'에 마음 '심(心)'자를 더한

신조어다

하반기의 새로운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추진된 이번 '강진 관광택시 도입' 간담회는 관내 총 58대의 택시를 보유한 개인택시 강진군지부와, 지역별 11개 법인의 대표자가 참여하여 사업실명과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단체보다는 개별관광객이 많고 가족단위 소규모 여행의 수요가 높다는 점 등 최근 소비자들의 관광 동향이 가심비 보다는 가심비 여행을 추구하는 성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군은 강진이 도시권에 비해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유여행객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강진 현직인이 추천하는 관광지 및 먹거리 정보와 길안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강진 관광택시'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강진=김영일 기자

목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목포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 활동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2일 부터 20일 까지 주요 하천, 농공단지, 환경기초시설 등을 중심으로 배출시설 및 방치시설 정상가동,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조치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

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리 감독이 취약한 추석 전후를 악용한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또한 "환경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에서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자체 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도군, '청년 점포 챌린지 쇼' 4개 개장

진도군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점포 챌린지 쇼' 4개를 최근 개장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7월 솔비지 호텔&리조트 진도 개장으로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진도를 원도심인 남문로 상가 등 골목상권의 특색 있는 음식과 체험거리를 접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개업한 '청년 점포 챌린지 쇼'는 진도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점 3개소와 캘리 공방 1개소 등 총 4개소이다.

음식점은 ▲윤금 등을 활용한 돈가스 전문점 ▲대파·홍미향 한우

초밥 전문점 ▲진도대과 고추장 불고기과 구기자 아이스 판매 전문점 등이다.

또 관광객들이 다양한 글씨를 체험할 수 있는 캘리 공방 1개소를 개장했다.

올해 초 진도군은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후 최종 대상자 4명을 선발했으며, 창업에 필요한 창업절차 등 기본교육,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공동 마케팅 홍보 지원 등을 실시했다.

또 2년간 임대료 비용 최대 1,200만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최대 7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부스에서 방문한 한 관광객은 "진도의 특산물인 윤금을 이용한 윤금밥과 돈가스를 먹게 되어 무척 건강해진 기분이다"며 "청년들이 자기 고장의 특산물을 이용해 음식을 개발하는 등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말했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청년 점포 챌린지 쇼 운영으로 진도의 중심상권인 진도를 남문로 상가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진도의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한 음식 개발·판매로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찾아오는 또 하나의 대표 골목 상권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수돗물 안심확인제' 실시



완도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완도수도관리단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란 워터코드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안전성과 관련된 수질 항목인 잔류염소, pH, 탁도, 구리, 철, 아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수질서비스 제도이다.

완도수도관리단은 2019년 2,200건을 목표로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돗물 음용물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또한 상수관망을 주기적으로 정비

하고 기존 노후관을 새 관으로 교체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완도군과 상호 협력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에 대해 가장 까다로운 수질 기준을 적용해 300가지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먹는 물 수질기준 61항

목에 대해서도 법보다 강화된 자체 관리 기준을 적용해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기남연 완도수도관리단장은 "물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으며,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 깨끗한 수돗물이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수돗물 안심확인제' 신청 및 검사(신청 기간 12월 13일까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완도수도관리단(061-550-8284,8249) 또는 국번 없이 1577-0600, 홈페이지(http://ikovewater.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장흥군, 축산 악취 해소 위해 현대화 시설 견학

장흥군은 최근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 경남 밀양시 무안면에 위치한 축산농장 견학을 다녀왔다.

이날 견학에는 장흥군축산사업소장, 축산단체협의회 축종별 대표, 관내 액비전문유통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방문한 돼지 사육농장은 분뇨를 원심분리해 미생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취를 빠른 시간에 제거한 후 액비화해 악취를 저감하는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사육농가와 인근 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장흥군 축산사업소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악취저감시설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공모사업 등을 통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군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 검사 실시

함평군보건소가 요양병원, 대형 목욕장 등 지역 다중이용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 주로 발생하는 레지오넬라균은 냉각탑, 샤워기, 목욕탕수 등 군에 오염된 물이 인체에 흡입돼 감염을 일으키는 제3군 법정감염병이다.

주로 발열, 마른기침, 인후통 등 가

벼운 증상을 유발하지만 만성 폐질환이나 흡연자의 경우 심하면 폐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305명의 국내 환자 발생했으며, 이중 22명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기준치 이상의 균이 검출된 시설을 대상으로 청소 및 소독 조치할 예정이며, 이후 재검사를

비롯한 지속적인 시설위생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예방을 위해서는 냉각탑과 저수탱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수시설의 냉수는 20°C이하, 온수는 50°C이상을 유지해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